

사순 제3주일

대구주보

ARCHDIOCESE OF DAEGU WEEKLY BULLETIN

2026.03

08

[가해] 제2527호

2025~2026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요한4,14)

오늘의 전례

입당송 제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시리니, 제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제1독서 탈출 17,3-7

화답송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옆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제2독서 로마 5,1-2.5-8

복음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

복음 요한 4,5-42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샘이 솟아나리라.



소리주보
QR코드

주일의 강론



성직자국장 | 서보호(라이문도) 신부

주님과의 만남

사람들과의 만남은 자신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때론 한 번의 만남이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는 이렇게 만남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되어 갑니다. 인간 사이의 만남도 이렇게 중요한데, 주님과의 만남은 어떨까요?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온 삶을 바쳐 신앙을 증거한 훌륭한 신앙인들이 그러한 변화를 체험한 이들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의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픈 과거를 지니고 있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직접 대화를 한 후에 사람들에게 당당히 예수님을 알리는 훌륭한 복음의 선포자로 변화

됩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 또한 이틀 동안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은 주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믿는다고 혼자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직접 만나는 삶을 통해 신앙은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상황에서, 어느 모습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지 모르니 모든 우리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주님께 마음을 향하게 만들어 주님과 진정으로 소통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터전이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빛남**

말씀 KEY WORD

마시다 | 피에 (πίη)

그리스 말 동사 ‘피에’는 ‘마시다’를 뜻하는 ‘피노(πίνω)’의 단순 과거형입니다. 요한 복음 4장은 이 동사를 현재형과 단순 과거형, 두 겹으로 겹쳐 놓습니다. 현재형은 마시고도 다시 목마른 인간의 시간을 말하고, 단순 과거형은 한 번의 마심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늘 길어 올려야 하는 우물 곁에서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우물이 아니라 샘입니다. 더 깊이 파지 않아도,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근원입니다.

그 물은 단지 고요히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뛰어오르는(ἀλλομένου)’ 물입니다. 칠십인역에서 하느님의 영이 사람 위에 내릴 때 쓰이던 바로 그 동사입니다. 삼손과 사울과 다윗 위에 임하셨던 영처럼, 그 물은 우리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힘 있게 약동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갈증을 잠시 덮는 위안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하신다는 표지입니다.

요한 복음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요한 20,31). 그 생명은 먼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결핍 한가운데서, 하느님은 늘 그렇게 샘을 터뜨리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께 매달리고, 그 물을 받아 마시는 사람일 뿐입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대신학원 신입생 입학 미사 봉헌 “부르심에 응답하는 용기, 교회가 함께합니다.”

3월 1일(일) 오전 11시 대신학원 성당에서 2026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신학원 신입생 입학 미사가 안동교구장 권혁주(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의 주례로 거행됐다. 올해는 18명(대구대교구 6명, 부산교구 8명, 안동교구 2명,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1명, 한국 순교자 복자 수녀회 1명)의 신입생이 입학했다.

최근 교회는 ‘성소 감소’라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동시에 사제 성소의 길이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이고 의미 있게 다가가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구 성소국장 조운제(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는 “우리 자신의 삶이 복음적 기쁨과 헌신의 모범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라며, “성소 증진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문제”라고 말한다. 기쁘고 진실한 사제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설득력 있는 성소 홍보라는 것이다. 교구 성소국은 예비신학생 모임, 성소후원회 미사, 여름 신앙캠프와 피정, 겨울 성소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들을 만나고 있다. 성소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앙을 삶의 우선 가치로 두는 용기’라는 말도 전해진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각자의 자유이지만, 하느님의 뜻을 먼저 묻고 따르려는 마음이 있을 때 성소는 비로소 현실이 된다. 교구는 매년 성소주일 행사를 통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신자들과 만남의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신학교 개방이 이루어지는 해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 신자들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학 미사를 통해 첫발을 내디딘 새 신학생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관심 속에서 이들이 충실한 목자로 성장해 가길 바라며,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기를 희망한다. 성소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하느님의 초대이기 때문이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D-508

Q. 우리는 세계청년대회 참가자들을 왜 ‘순례자’라고 부르나요?

세계청년대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영적인 여정이자 희망의 순례이기 때문입니다. 참가자들은 여행 온 방문객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만남과 신앙 성숙이라는 깊은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여정에 참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세계청년대회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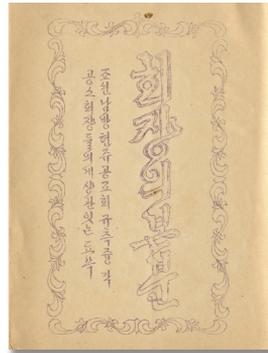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와 젊은이들을 위한 목주기도 봉헌 운동(2025.8.1.~2026.2.27.) 17,746,510단

공동체의 기틀을 세우다

교구 문화홍보국 장성녕 안드레아

루르드의 성모께 허원을 바친 뒤, 드망즈 주교는 교구의 기틀을 다지는 일에 곧바로 착수했습니다. 당시 대구대목구는 관할 지역이 매우 넓었던 반면에 사제 수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본당은 18곳이었으나 공소는 390여 곳에 달했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사제가 상주하지 않는 공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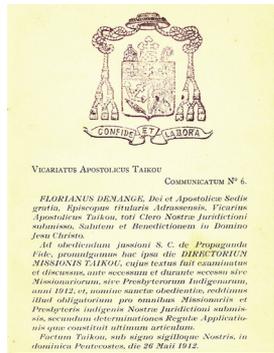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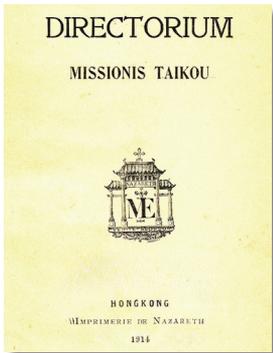
첫 사목 방문을 마친 드망즈 주교는 공소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교구의 기초를 세우는 일임을 간파하고 사목 원칙을 명문화한 지침서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장의 본분



드망즈 주교의 서문



사목지침서

마침내 1912년 5월 26일, 드망즈 주교는 ‘대구대목구 사목지침서’를 공포했습니다. 이는 1922년 9월 21일에 공포된 서울대목구 사목지침서보다 10년이나 앞선 선구적인 조치였습니다. 그 안에는 교구 운영의 기본 원칙과 함께 ‘회장의 본분’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단순히 공동체를 대표하는 이가 아니었습니다. 사제가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 공소에서 신자들을 모아 사제를 대신해 주일 예절을 이끌었고, 교리 교육과 성사 준비를 총괄하며 교회 규율을 살폈습니다. 공소 재정과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도 맡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회장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과 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드망즈 주교가 이 역할을 제도화한 것은 새로 출범한 교구가 안정되려면 평신도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침은 교회가 사제만의 힘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공소 공동체의 역량이 곧 교구의 기반이라는 인식을 담아낸 대구대목구 사목 방향의 결정적이정표였습니다. 실제로 이후 대구대목구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은 사목의 든든한 한 축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공소가 본당으로 자리 잡거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통폐합되며 교회의 사목 체계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공동체는 위임받은 몇 사람의 수고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역할 속에서 이루어지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드망즈 주교가 사목지침을 통해 세우려 한 것은 단순한 행정적 규칙이 아니라, 책임 있는 공동체의 기틀이었습니다. 이처럼 대구대목구는 허원과 신앙의 고백 위에서 시작되었고, 평신도와 사제가 함께 걷는 구체적인 사목 질서를 갖추며 자리를 잡아 갔습니다. **빛남**

수녀들의 피정에 관한 의견

8월 28일(수)

로베르 신부가 어제 왔다. 오늘은 김(金承淵) 신부의 침례이다. 저녁에 시베리아에서 카닥스 신부의 8월 13일 자 첫 편지가 왔는데, 그는 블라디보스토크 북방 400km 지점에 있다는 것이다.

8월 31일(토)

샤르트르프 신부가 영천(永川)에 가고, 줄리앙 신부가 돌아왔다. 생계비가 비싸져서 나는 하인들을 위해 2원씩 올렸다.

9월 2일(월)

대성당의 제대 설계도를 완성했다. 샤르트르프, 소세 신부들이 산을 넘어서 돌아왔다. 무세 신부는 전라도로 가는 밤 열차를 기다리기 위해 줄리앙 신부와 함께 저녁에 영화관에 갔다가 떠났다.

9월 3일(화)

수녀들이 양잠장(養蠶場)에서 막 돌아와서 새로 한국인 수녀 한 명을 데리고 온 가밀라 수녀의 방문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이고 방문의 진짜 이유는 수녀들의 피정에 대한 결정에 내가 관여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수녀에게 그 문제를 이렇게 요약해 주었다. “샤르트르에서 내게 대구에서의 피정 강론을 요청했다. 이어 샤르트르에서 나에게 아무 말 없이 대구에서 피정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샤르트르에서 다시 대구에서 피정을 하도록 했다. 이런 변화에 있어 나는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으나, 이 모든 일이 끝나야 하므로 나는 대구 피정이 계속 될 것을 원한다.” 이어 나는 그 수녀에게 학교 수녀들과의 어려움에 관해 알려 주고 내가 고수하려는 것은 한 가지, 즉 대구에는 수녀원도 하나, 원장 수녀도 하나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입회 조건에 앞으로 수녀들이 면허증을 소유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수녀는 그런 사실을 부정했다. 그 수녀는 방금 들은 것들을 미리 알았다더라면 샤르트르에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에 대한 소문을 들었더라도 화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수녀는 대구에 수녀원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데 나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수녀는 나의 설명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순례'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성지순례,
도보순례 참여하기

참된 순례자로 준비할 수
있도록 영적 지도하기

세계청년대회 참가 청년들을
위한 기도와 후원하기

2026년 한 해 동안 교구 평신도위원회에서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일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영상은 교구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교구 일정

선종 사제	미사 안내	교구 행사
3 08(일)		세계청년대회 교구대회 홍보미사, 11:00 동천성당
09(월)	3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0:00 월성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0:00 황성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레미사, 11:00 계산성당 2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레미사, 11:00 범어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레미사, 11:00 신평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레미사, 11:00 죽도성당	시니어평생대학 연합회 프로그램 연수, 14:00 교구청 본관 중강의실
10(화)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1:30 계산성당	2026년 첫 본당 주임사제 직무 연수, 09:30 교구청 본관 전산실습실 장년을 위한 토빛피정, 11일까지 한티 피정의 집
11(수)	김천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0:00 평화성당	예비신자 교리교사학교 개강, 14:00 교구청 본관 중강의실
12(목)	이기수 야고보 몬시뇰 (1996년 3월 12일 선종)	
13(금)		임신부 축복미사, 10:00 교구청 본관 소강의실
14(토)	이문희 바울로 대주교 (2021년 3월 14일 선종)	토비아 성지순례, 07:00 신리성지, 원머리 성지 신임교리교사학교(149차), 09:30 교구청 교육관 나동 4층 파스카 청년성서모임 창세기 연수(제232차), 15일까지 꾸르실로 교육관 '말씀과 함께 살기' 사순 피정, 15일까지 사수동 베네딕도 영성관

사제 부모 일일 피정

교구 성직자국에서는 사제부모들을 위한 일일 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제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5. 8.(금) 10:00~14:00

대상 대구대교구에 거주하는 모든 사제 부모

접수 3.20.(금)까지

장소 범어대성당 드망즈홀

프로그램 강의(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음악피정, 미사와 식사

신청방법 그룹웨어 또는 전화 250-3040(성직자국)

2027 WYD 대구 교구대회 **홈스테이** 가족 신청(1차)

“홈스테이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는 것입니다.”

신청 기간 6. 30.(화)까지

신청 방법 본당 사무실 방문 또는 오른쪽 QR코드
문의처 대구교구대회 조직위원회, 250-3116,7



홈스테이 1차
신청 바로가기



수도회 | 피정 알림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수시
 장소: 성북동 본원
 문의: (010)8715-2846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소자 모집

성모성심을 통하여 천주성삼께 영광을!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남자 수도 생활 성소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수도자의 삶에 관심있는 청소년·청년
 문의: 성소부, (010)5195-3217

원로사제들과 함께하는 진목정 성지 피정

일시: 매월 둘째주 토요일 10:00~16:00
 인원: 30명 이상 신청 (선착순 150명)
 신청: 인터넷 사이트와 QR 코드



▶ 피정 신청 QR 코드

착한목자수녀회 낙태 후 화해 피정

기간: 3.20(금)~22(일) / 4.10(금)~12(일)
 2박 3일, 회비없음
 장소: 성 안드레아 피정의집(인천)
 문의: 전담 수녀, (010)6637-1366

한국순교복자수도회 제주 산들평화순례 피정

제주순례: 3.27~29 / 5.9~11
 5.15~17 / 5.21~23
 추자도순례: 3.12~14 / 5.29~6.1
 6.4~7 / 6.8~11
 문의: 면형의집, (064)732-4702

제주 '푸른꿈 제주섬' 피정에 초대합니다

강우일 주교와 함께 섬, 순례, 말씀초대
 기간: 4.11~13 / 4.28~30 / 5.23~25
 장소: 성이시돌피정의집 / 주최: 한통사
 대상: 개인, 가족, 단체, 본당 구반장
 문의: (010)9670-9775 / (010)7200-4567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5.30~31 / 6.12~14(2박 3일)
 4박 5일: 2.23~27 / 3.12~15(3박 4일)
 8박 9일: 3.19~27 / 4.10~18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신청: (010)4906-5722 / (031)953-6932

시설 | 기관 | 단체 알림

대구성령쇄신봉사회 월요 밤 기도회

일시: 3.9(월) 18:00~22:30
 장소: 남산동 성모당 내 (꾸르실료교육관 대성전)
 강사: 장영인 스테파노(부산교구)
 미사/안수: 김준년 베드로 신부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 매주 월 19:30, 계산문화관 5층
 문의: (010)3529-3898 / (010)3823-1970

체나콜로 3월 미사 (매월 셋째토)

성모신심미사와 기도모임에 마리아 사제운동 회원과 교우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3.21(토) 10:00, 삼덕성당
 대중교통, 공용 주차장 이용
 문의: (010)9366-9170

샬트르성바로수녀회 청년센벨

사순 음악 피정 "향유로 그분의 발을"
 일시: 3.13(금) 19:30
 장소: 남산동 본원
 대상: 모든 미혼 청년
 신청문의: (010)5862-2846

예수성심시녀회 겨자씨성서 신입생 모집

구약반: 월요일 20:00, 수요일 10:00
 신약반: 화요일 10:00, 20:00
 심화반: 월요일 20:00, 화요일 10:00
 문의: (010)4521-1935

일반 | 기타 알림

제21회 가톨릭 환경상 공모

접수: 3.18(수)~5.1(금), cbckcee@cbck.kr
 대상: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활동에 기여한 개인 혹은 단체
 문의: 주교회의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고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02)460-7622

2026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과정 추가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추가 모집: 3.31(화)까지 원서 접수
 문의: (02)745-8339, ci.catholic.or.kr

예수고난회 다네이 글방

하느님을 향한 매달 한 권의 책임기와 한편의 글쓰기
 기간: 3월~6월, 둘째·넷째 화요일
 20:00~22:00 (비대면, 3만원)
 문의: (010)9503-1127

병자들을 위한 꽃동네 치유세미나

기간: 4.17(금) 11:00~18(토) 16:00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영성원
 내용: 미사, 강의, 면담, 고해성사, 치유예절과 안수 / 회비: 9만원
 문의: 음성꽃동네, (010)5490-5345

한국외방선교수녀회 zoom 기도 모임

일시: 월 2회, (금) 20:00~21:00
 대상: 20~40세 미혼 여성
 문의: (010)9353-1773

제주도 관광 안내

제주운전기사회에서는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예약가능
 문의: (010)4566-6476

교구 | 대리구 알림

2026 예비신학교 개학미사

개학미사: 3.8(일) 14:0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대성당

교구 내 모든 예비신학생, 미사 후
반별모임 / 가족 참석 가능합니다

문의: 교구 성소국, 250-3071

3월 임신부 축복미사

일시: 3.13(금) 10:00~12:00

장소: 성모당

대상: 임신부 (매월 참석 가능)

진행: 기도모임 및 축복 미사

신청(필수): 가정복음화국, 250-3077

청년 1박 2일 피정

기간: 3.28(토)~29(일)

장소: 사수동 베네딕도수녀원 영성관

대상: 07년생~87년생

신청비: 4만 5천원

문의: 젊은이사목대리구, 250-3106

시설 | 기관 알림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캘리그래피, 합창교실, 성가반주 오르간,
자아성장 & 마음 미술치료, 가곡과 성가,
서양화, 가야금 성가, 수요일객, 피아노,
성인 모래놀이치료, 발성법, 제대꽃꽂이,
한국천주교회의 역사 / 신청: 254-6115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일반검진,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 (8:00~17:00)

가톨릭피부과의원 전문의 초빙

가톨릭피부과의원에서

전문의를 초빙합니다

초빙과목: 피부과, 가정의학과

문의: 320-2171

전인병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전문재활병원

국가건강검진(내과전문의 2인 진료)

문의: 1688-7667 (9:00~17:30)

천주성삼병원 보건복지부 인종의료기관

인공지능 3.0T MRI 도입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진료

중증외상센터 교수경력 전문의

척추 수술적 / 비수술적 치료

문의: 790-1000

cpbc 대구가톨릭평화방송 (FM 93.1MHz) **오늘의 강론** 3월 9일(월) ~ 3월 14일(토) 6:50, 16:50, 23:50 **김종현(토마스아퀴나스) 신부**

LG전자 (주)윈디
LG 시스템어컨 공적전문점
아파트 · 상가 · 병원 · 공장 · 공공기관
설계 · 견적 · 시공 · 사후관리
대표 모재석(루카) 김지영(로사)
1533-2545

척추 · 어깨 · 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내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산부인과/가정의학과/이비인후과/치과
건강검진센터 | 응급실 24시간 운영
진료 예약 및 문의 | ☎ 053) 320-2500

유림익스프레스
허 만 철(바오로) 하 요 안 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병 · 의원 마케팅
N 상위노출 · 플레이스 · 광고심의
알아서다 해드립니다
디딤애드 1544-4080
김민영(에스텔)

김앤신경과
두통 / 어지럼증 / 파킨슨병 / 치매
뇌혈관질환 / 손발저림 · 떨림 / 동증
원장 김성재(베네딕도) 신경과전문의 | 의학박사
감삼역 3번 출구 40m(시민약국 건물) 5층
053)625-8899

유앤아이 결혼정보
010-6572-2233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70(남산동)
청라센트럴파크 상기 3층 307호
김경림(아네스)

가람소방방재(주)가람이엔지
· 전문소방시설관리 · 기계설비성능점검
· 전문소방시설공사 · 기계설비유지관리
· 소방시설안전관리대행
대구시 서구 외용로 307, 디센터1976 711호
대표전화 053)288-3260 HP 010-4245-0507
대표이사 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

KGB 포장이사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무료전화 080-053-1000

라식, 노안렌즈, 백내장수술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일구 대성빌딩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데보라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신과 과장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의학박사 대한수면학회 회장/이성정 역임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전라센터 맞은편)
☎ 053)942-8822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윤(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파크골프
국산채 최대50% 수입채/혼마 무료레슨
(주)매일프라자
한일의료기 매트 소형
소금 열 좌욕기 가전
김홍은(요셉) 010-9804-8008
대구 유통단지로 45 전자관 동문1층 240호

도앤김내과
주·야간 혈액투석 만성질환
국가 검진 위대장내시경
원장 도원석(베드로) 김아람(나나)
대구 서구 팔달로 152. 4층 지하주차장상반비
3호선 팔달시장역, 팔달시장 맞은편
외래검진 053)357-7400 신장실 053)357-7500

코리아알트만
43년 전통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053-743-4488
M. 010-3530-7467